

# 광주 시 창업캠프, 인공지능 창업·사업화 중심지 부상

### 캠프 개소 1년 만에 11개사 아이디어·기술로 178억 투자 유치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등 75개사 입주 기업육성 추진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창업캠프’가 인공지능 창업·사업화를 돕는 핵심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창업캠프와 연계해 인공지능 스타트업 등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 인공지능 창

업캠프는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호점을 개소했으며, 인공지능 관련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75개사가 입주해 활동 중이다  
특히 민간 창업기획자(AC)와 벤처기업투자자(VC) 협업에 따른 교육, 컨설팅 등 창업기업 육성과 사업화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작은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곳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 인공지능 창업캠프 개소 이후 지금까지 입주 11개사에서 178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54명의 우수 인재를 신규 고용하는 성과를 냈다. 또 2021년 인공지능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10개팀이 수상하고, 이후 신규 창업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 창업의 디딤돌 역할도 해내고 있다.  
입주기업 중 인공지능 기반 감성 맞춤형 음악추천 플랫폼 기업 ㈜인디제이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제작지원, 투자펀드, 규제해소 컨설팅 사업 지원 등을 받고, 지난해 500%

가 넘는 매출 성장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캠프 2호에선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입주 등을 지원 중인 데, 성장단계에 접어든 기업 간 협력과 투자사와의 연계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 있다.  
광주시는 또 창업캠프 내에 ‘광주 AI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원스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예비창업자를 위한 인공지능 창업 경진대회와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및 투자펀드

지원, 기업 성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지원, 품질제고 및 규제해소 컨설팅, 글로벌 인공지능 컨퍼런스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 AI창업캠프는 입주는 물론 기업 간의 협업, 창업과 사업화 지원, 교육과 멘토링, 투자펀드 등을 지원하는 종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창업과 사업의 성공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준비된 공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목포 재택관리센터 방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1일 오후 목포시 수문로 목포시 코로나19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방문, 코로나 방역 대응 상황 및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현황을 청취했다.

## 전남도,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본격화

###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

전남도가 남도음식 등 향토음식의 체계적 조사와 기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을 위해 지역 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등을 위한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 진흥원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학 교수, 향토음식 전문가, 용역업체 등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졌다.  
문 연구위원은 소멸하거나 잊히는 남도음식의

기록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서 이은경남도음식연구소장 등 참석자들은 “남도음식 등 향토음식은 우리 고유의 역사성과 민족성을 나타내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체계적인 연구개발 부족으로 전통성과 가치가 점차 퇴색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향토음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조사와 기록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향토음식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국립남도음식진흥원 건립을 제안했으며, 이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예술인 창작 지원 ‘광주형 문화메세나’ 본격 시동

### 신진작가 후원금의 200% 중견작가 100% 매칭 펀드 3월말 사업 참여 공모

광주시가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이 될 광주형 문화메세나 ‘문화동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를 ‘문화동행’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9000만원에 비해 7.8배 증액한 예산 7억원을 편성하고 민간 후원금과 매칭해 각각 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액과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는 특히 광주형 문화메세나 사업을 시민문화동행, 기업문화동행, 함께문화동행 등 3대 문화동행으로 리뉴얼해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문화동행은 예술 창작 아이디어는 풍부하지

만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단체를 모집한 뒤 이들 단체에서 각종 모금프로젝트를 통해 기부금을 확보하면 시비 매칭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활동경력이 10년 이내 신진 예술가에게는 본인이 모금한 금액 2배를 시비로 매칭해 1팀당 최소 6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지원하고, 10년 이상의 전문 예술가에게는 본인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매칭해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문화예술인은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단위로 모금할 수 있으며 지정기부금, 소액모금, 필요시 개별 모금함 개설, 온라인 홍보채널 가동 등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해 공동모금 활동을 펼치면 된다.  
‘기업문화동행’은 후원 기업 발굴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제작 여건을 개선해 가는 사업이다.  
대상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특성에 맞는 미디어아트 작가, 공공문화예술 전문 작가 등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거나 희망하는 예술인·단체다.

시는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더어 마이 광주’ 등을 활용하거나 찾아가는 메세나 ‘IR-데이’ (기부 홍보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통해 후원기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함께문화동행’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의 문화보듬10000센터를 통해 월 1000원부터 1만원까지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기부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영수증 발행, 행사 및 공연 초청, 후원자 명단 공개, 기부자 헌판 또는 감사패 제작, 방송과 연계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의 선순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민문화동행’과 ‘기업문화동행’에 참여할 문화예술인과 단체는 오는 3월말 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듬소통센터 예술복지팀(062-670-5722)에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복지사각 위기가구 지원 강화

### ‘노랑호루라기’ 대상 기준 완화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지원 대상 선정 재산기준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은 재산 2억6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위기사례 지원은 1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

한 경우 구청, 동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대상자는 월 130만원, 주거지원 대상자는 월 64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위기사례 지원은 연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저소득 위기가구 677명에게 위기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 등 3억3927만여원을 지급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

광주시는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평가결과 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재추천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재공모한 후 적임자로 인정되는 후보자를 재추천하면 인사정문화 등을 거쳐 임명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제는 “수목장” 입니다



문종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

➤

수목장 전환



방치된 묘지 70%(추정)





가죽 수목장 조성 과정



가죽 수목장 조성 과정



가죽(30평 이하) 수목장

대가장묘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  
후손들에게 묘지 관리를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있을까?

062) 464-9190